A Midsummer Night's Dream, Op. 21 & Op. 61 (overture & incidental music)

- □□—

정보

개요
곡명: A Midsummer Night's Dream, Op. 21 & Op. 61 (overture & incidental music) / 《한여름 밤의 꿈》
작곡가: Felix Mendelssohn (1809–1847)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극 A Midsummer Night’s Dream; 1843년 무대에서는 아우구스트 빌헬름 슐레겔의 독일어 번역 사용
작곡: 독립 서곡 1826년; 연극 음악 1842–1843년
초연: 서곡 공개 초연 1827년 2월 20일 슈테틴; 연극 음악을 포함한 첫 상연 1843년 10월 14일 포츠담 신궁 궁정극장
구성: 먼저 작곡된 서곡과, 그 뒤에 놓이는 연극 음악 1–13번. 기악곡뿐 아니라 노래, 합창, 대사에 붙는 짧은 음악도 포함한다.

IMSLP: 서곡 Op. 21 · 연극 음악 Op. 61

Wikipedia: A Midsummer Night’s Dream (Mendelssohn)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은 셰익스피어의 같은 이름의 희극을 향해 두 차례 돌아간 결과다. 열일곱 살에 쓴 서곡 Op. 21은 연극 없이도 완결되는 관현악곡이고 , 약 16년 뒤 프로이센 궁정 공연을 위해 쓴 Op. 61은 그 서곡을 앞에 놓고 배우의 대사와 무대 동작 사이에 13개 번호를 더한 연극 음악이다. 원작에서는 아테네의 젊은 연인들, 다투는 요정 왕과 왕비, 서툰 연극을 준비하는 장인들이 한밤중 숲에서 뒤얽혔다가 아침에 화해한다. 이 작품을 결혼 행진곡 한 곡이나 몇 개의 관현악 발췌곡으로만 들으면, 서로 다른 세 집단이
부딪치고 무대의 시간이 바뀌는 과정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음악은 그 차이를 악기의 무게와 움직임으로 먼저 알려 준다. 현의 짧고 빠른 음형은 요정들이 지나는 길을 만들고, 넓은 선율은 연인들에게 잠시 숨 쉴 자리를 준다. 장인들이 끼어들면 저음과 투박한 리듬이 이전의 가벼움을 흐트러뜨린다 . 이 대비는 단순한 인물 표시에 그치지 않는다. 숲에서 벌어진 착오가 무대의 대사와 몸짓을 통해 커졌다가, 잠과 각성, 결혼 축제, 장인들의 어설픈 극중극을 거쳐 마지막 요정들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희극의 호흡을 이룬다.

출판 정보와 자료

서곡은 1826년 여름에 완성되어 그해 8월 베를린 멘델스존 가정의 사적 연주에서 먼저 들렸다. 공개 초연은 이듬해 슈테틴에서 카를 뢰베가 지휘했다. 처음부터 연극 공연에 매인 전주곡은 아니었다. 멘델스존은
요정들의 출입, 아테네의 궁정, 숲에서 헤매는 연인들, 우스꽝스러운 장인들을 하나의 관현악 흐름 안에 담아 독립된 연주회용 서곡을 만들었다. 1832년 첫 관현악 파트가 출판된 뒤에도 이 곡은 무대와 별개로 연주될 수 있었다.

1840 4 1842 11 1 , Op. 61 ‘1842 ’ , 1843 . 10 14 .

2–4 5 7 .

Op. 21 1844 . 1845 1847 , 11 1848 6 . 1826 , .

12

12 . Op. 61 45 , , 30 . ‘ ’ .

corno inglese di basso

Op. 61 , , .

Op. 21:

서곡은 조용한 네 화음으로 시작한다. 다음 순간 바이올린이 잘게 움직이면서 밝게 열린 문 안으로 불안정한
밤의 세계가 들어온다. 현의 분주한 움직임은 요정을 닮았지만, 음악 전체가 같은 가벼움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숲속의 연인들을 떠올리게 하는 길고 부드러운 선율, 뿔피리처럼 들리는 호른의 신호, 땅을 딛는 듯한 저음의 익살이 잇따른다. 특히 장인들과 당나귀 머리로 변한 바텀을 연상시키는 거친 소리는 요정 음악의
섬세함을 일부러 방해한다.

이 서곡은 희곡의 다섯 막을 순서대로 요약한 줄거리 음악이 아니다. 서로 다른 세계를 관현악 안에 세운 뒤, 그 재료가 대조되고 되돌아오는 독립적인 곡이다. 그래서 연극 공연을 보지 않아도 시작과 발전, 복귀, 고요한
끝맺음을 따라갈 수 있다. 동시에 훗날의 Op. 61은 이미 서곡이 마련한 음향적 기억을 활용한다. 극장에서
요정들이 노래하거나 장인들이 장난을 벌일 때, 관객은 앞서 들었던 이질적인 소리의 관계를 다시 알아듣는다 .

연극 음악 Op. 61: 서곡 뒤의 열세 번호

1–4번: 아테네에서 숲으로

1번 **스케르초 (Scherzo)**는 아테네의 인간 세계를 떠나 숲에 들어가는 첫 전환이다. 목관과 현악기가 짧은 음을 주고받으며 발걸음이 가볍게 튀고, 선율은 어느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서곡의 요정 음악과
닮았어도 단순한 반복은 아니다. 독립 서곡이 숲 전체를 멀리서 보여 주었다면, 스케르초는 이제 배우들이 그 안으로 뛰어드는 속도를 만든다.

2번 **요정 행진 (Elfenmarsch)**에는 대사와 짧은 행진이 붙는다. 전통적인 군대 행진처럼 무게를 실은 걸음이 아니라 요정들의 작은 움직임이 이어지는 장면이다. 3번 **노래와 합창 (Lied mit Chor)**에서는 두 요정의 독창과 여성합창이 요정 왕비 티타니아를 재우는 노래를 부른다. 요정이 잠을 지키는 동안 관객은 곧 닥칠 마법의 장난을 알고 있다. 고요한 자장가는 그래서 마냥 평온하지 않다. 4번의 짧은 **안단테 (Andante)**는 다시 대사 아래로 스며든다. 이 부분까지 오면 Op. 61의 모든 번호가 연주회용 독립 악곡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

5–8번: 길 잃음과 잠

5번 **간주곡 (Intermezzo)**은 마법 때문에 라이샌더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 헤르미아의 불안을 안고 시작한다. 현의 긴장된 움직임과 목관이 주고받는 선율이 숲속의 수색을 밀어붙이다가 , 뒤쪽에서는 장인들의 거친 걸음으로 기울어진다 . 연인의 두려움과 장인들의 익살을 한 번호 안에서 이어 놓는 변화다. 초연 무대에서 헤르미아가 이 음악에 맞춰 움직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음악은 단순한 막 사이의 빈칸이 아니라 말 없는
연기의 일부가 된다.

6번의 **대사 음악 (Dialog)**은 긴 독립 악곡이 아니라 배우들의 말과 동작에 붙는 짧은 구간이다. 7번 ** 야상곡 (Notturno)**에서는 호른이 길게 노래하고 바순들이 그 선율을 받쳐 준다. 앞선 스케르초의 재빠른
걸음이 사라진 자리에 잠든 연인들의 정지된 시간이 놓인다. 어둠이 위협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모두가 잠든 동안 잘못된 마법을 풀고 관계를 바로잡을 여지가 생긴다. 8번의 대사 음악 이 이어지면 오베론과 티타니아, 퍽 , 테세우스의 세계가 다시 무대에서 만난다. 야상곡의 고요함은 마지막이 아니라 깨어남을 위한 잠시의 정지였다.

9–13번: 결혼식, 서툰 연극, 요정들의 귀환

9번 **결혼 행진 (Hochzeitsmarsch)**은 원래의 다섯 막 구조에서 4막이 끝나고 5막의 축제로 들어가는 자리다. 트럼펫과 트롬본이 선명한 화음을 세우고 팀파니와 심벌즈가 의식의 규모를 키운다. 서곡의 숲과 달리 사람들 앞에서 치르는 공적인 결혼식이 들린다. 다만 희극은 행진과 함께 점잖게 끝나지 않는다. 이제 장인들이 궁정 사람들 앞에서 준비한 연극을 공연해야 한다.

10번 **장송행진 (Marcia funebre)**의 죽음은 실제 인물의 비극이 아니라 그 극중극의 피라무스에게 닥치는 죽음이다. 장중해야 할 음악이 연기 자체의 서투름과 만나면서 웃음을 낳는다. 11번 **장인들의 춤 (Ein Tanz von Rüpeln)**은 이들의 투박한 신체감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다. 결혼 행진과 장송행진, 장인들의 춤을
연달아 들으면 이 작품이 무작정 예쁜 요정 음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격식 있는 궁정과
어설픈 민중극이 같은 무대를 나누는 것이 희극의 끝부분이다 .

12번 **장면과 대사 (Szene und Dialog)**는 인간들의 축제가 끝난 뒤 요정이 다시 들어올 자리를 만든다. 13 번 **피날레 (Finale)**에서는 여성합창과 요정의 노래가 집을 축복하고, 퍽의 마지막 말이 꿈처럼 지나간 밤을 되돌아보게 한다. 음악은 처음 서곡에서 들었던 가벼운 움직임과 네 화음의 기억으로 돌아간다. 시작에서
숲으로 들어갈 때는 그 화음 뒤에 어떤 소동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끝에서 다시 들을 때는 이미 사랑의 혼란과 장인들의 연극을 지나왔다. 같은 소리가 희극의 입구이자 출구가 되는 셈이다.

연주회에서 듣는 곡과 극장에서 듣는 작품

서곡, 스케르초, 간주곡, 야상곡, 결혼 행진은 대사 없이도 이어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다섯 곡만이 작품의 전부는 아니다. 요정의 자장가와 마지막 합창을 빼면 밤의 시작과 끝을 노래로 감싸는 구조가 약해지고, 장인들의 음악을 빼면 관현악이 마련한 세 번째 인물 집단도 희미해진다 . 반대로 대사가 많은 무대형
공연에서는 관현악이 멈추는 순간까지 극의 박자가 된다. 같은 악보를 두고도 ‘모음곡 ’, ‘연극 음악 전곡 ’, ‘ 희곡을 포함한 공연 ’이 서로 다른 경험이 되는 이유다.

음반의 ‘전곡 ’ 표시는 언제나 같은 범위를 가리키지 않는다. 어떤 음반은 음악의 짧은 연결 구간만 생략하고, 어떤 음반은 배우의 대사를 줄이며, 또 어떤 음반은 장인들의 장면 전체를 덜어 낸다. 마지막 경우에는 결혼 행진과 피날레 사이에 놓였던 극중극의 웃음도 사라진다.

주요 레코딩

말콤 서전트 /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올드 빅 극단 (1954년 녹음). 프리스틴 클래시컬의 재발매 는 약간 축약한 영어 희곡과 음악을 함께 담는다. 4막의 한 장면이 빠지는 등 완전한 대본 공연은 아니지만, 배우의 말이 길게 이어진 뒤 스케르초나 야상곡이 들어올 때 음악의 쓰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듣기 좋다. 성악과 관현악만을 차례로 재생한 음반과는 접근 자체가 다르다.

클라우디오 아바도 / 베를린 필하모닉 (2013년 실황, 2016년 발매). 베를린 필하모닉 레코딩스의 발매

정보 는 이 음반이 사후에 나온 아바도의 마지막 콘서트 기록임을 밝힌다. 이 연주는 희곡 전체의 상연보다 선별된 음악의 관현악적 흐름에 가깝다. 두 성악 독창자와 여성합창도 참여하지만 , 음반에서 성악가가 메조소프라노로 표기되었다는 이유로 Op. 61 악보의 기본 편성을 바꾸어 적어서는 안 된다.

존 엘리엇 가디너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2016년 녹음, 2017년 발매). LSO Live의 음반 설명 에 따르면 가디너는 장인들에 관한 음악을 모두 빼고 요정과 연인들의 세계에 초점을 맞췄다. 대사와 성악이 살아 있어 짧은 기악 모음곡보다 극장에 가깝지만, 10번 장송행진과 11번 장인들의 춤을 포함한 전곡 연주로
소개할 수는 없다. 서전트의 극장 중심 기록과 나란히 들으면 지휘자가 어느 인물 집단을 남기느냐에 따라 같은 희극의 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 있다.

주요 자료

Breitkopf & Härtel, Leipzig Mendelssohn Edition의 Op. 61 목차: 서곡 뒤 1–13번의 정식 순서.
Boris von Haken, Eulenburg 판본 해설: 의뢰와 첫 공연, 티크의 축약 연출, 총보 출판과 판본 관계

.

Breitkopf & Härtel, Op. 21 비평판: 자필악보와 초기 출판본의 차이.
Bärenreiter의 서곡 자필악보 팩시밀리 소개: 자필악보의 저음악기 표기와 후대 대체 악기.
Los Angeles Philharmonic 작품 해설: 희곡의 인물 관계와 대표 기악곡의 극적 위치.
Breitkopf & Härtel, Op. 61 공연 자료: 편성 ·소요 시간.
Pristine Classical, 서전트 /올드 빅 녹음, Berliner Philharmoniker Recordings, 아바도 실황, LSO Live, 가디너 녹음: 수록 범위와 공연 성격.